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9.(월) 11:00 (지면) 2026. 11. 10.(화) 조간 배포 2026. 11. 09.(월) 06:00

해수부,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출상담회 및 시장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6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수출상담회 및 시장설명회(Korea-Vietnam Offshore Service Industry Week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

베트남은 대규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해양플랜트가 노후화하면서 유지보수 및 해체·재활용 수요도 늘고 있어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첫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8월에는 하노이에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22.5GW 확충, 2035년까지 해상풍력 6~17GW 건설 등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하노이 협력센터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베트남 석유연구원* 및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약 28개사, 베트남 에너지 관련 기업 50여 개사 등에서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베트남 국가 산업·에너지그룹(Vietnam National Industry-Energy Group) 산하 연구기관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및 전략 수립,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수행

지난해 제1회 행사가 베트남 정부·공기업 등과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베트남의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첫째 날인 10일(화)에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과 베트남 발주처 간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상담 테이블마다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상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날인 11일(수)에는 베트남 석유연구원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를 열어 베트남 에너지 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의 협력 전략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수주 경험과 우수 기술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베트남은 노후 해양플랜트의 해체·개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라며, "이번 행사 성과가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현지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인자 (051-773-5240)
		담당자	서기관	박형범 (051-773-56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